

〈박만득전〉에 나타난 갈래 교섭 사례*

정 준 식**

차 례

- | | |
|-------------------------|---------------------|
| 1. 들머리 | 3. 갈래 교섭이 작품에 끼친 영향 |
| 2. 〈박만득전〉에 나타난 갈래 교섭 양상 | 4. 남은 문제 |

국문초록

최근에 소개된 〈박만득전〉은 고전소설로서는 무척 이례적으로 갈래 간 교섭 사례를 다채롭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박만득전〉은 전대의 추노설화와 추노계 소설을 기반으로 삼되 가사체를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다. 가사체의 도입은 〈박만득전〉을 여성들의 독서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파격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선택의 결과 주인과 노비의 신분갈등은 크게 약화되고 남매이담합과 남녀결연담이 새로운 핵심 서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말하자면 다채로운 갈래 교섭이 구조의 변화, 주제의 변화, 담당층의 변화까지 수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개별 작품이 창작되는 과정에 다양한 갈래 교섭이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2008AA003)

**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등반된 사례는 우리 고전소설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개별 작품의 창작에 갈래 간의 교섭이 끼친 영향을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작업이 구체화될 때 조선후기 문학사의 역동성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박만득전, 가사, 소설, 추노설화, 노비, 주인, 신분해방, 갈래교섭

1. 들머리

<박만득전>은 주인과 노비의 신분갈등을 다룬 소설로서 홍윤표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30장 분량의 국문 필사본이 유일하다.¹⁾ 이 작품을 처음으로 소개한 조재현은 <박만득전>을 여타 추노계 소설과 대비하면서 개괄적인 논의를 폈다.²⁾ 그는 <박만득전>이 <김학공전>과 <신계후전>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들의 이본은 아니며, <탄금대>와도 유사점이 많지만 <박만득전>이 추노계 소설로서 더 큰 의의를 지닌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박만득전>이 <탄금대>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하였다. 조재현의 논의는 <박만득전>의 존재를 새롭게 알려 향후 추노계 소설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박만득전>이 <탄금대>보다 선행했으리라는 가설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정준식은 추노계 소설의 형성경로를 검토하는 자리에서 <박만득전>의 형성과정을 다룬 바 있다.³⁾ 여기서 그는 추노계 소설의 제재적 근원

1) 조희웅, 『고전소설이본목록』, 집문당, 1999, 161쪽.

2) 조재현, 「<박만득전>과 推奴系 小說의 비교 연구」, 『국민어문연구』 제8집, 국민대 국어국문학연구회, 2000, 120-132쪽.

3) 정준식, 『추노계 소설의 형성과 전개』, 세종출판사, 2004, 185-197쪽.

을 ‘복수형 추노설화’로 파악한 뒤, 이것이 고전소설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수용되어 <김학공전>과 <살신성인>이 창작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두 작품이 후대 소설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 추노계 소설은 <김학공전>→<신계후전>→<탄금대>→<박만득전>으로 이어지는 계열과 <살신성인>→<삼강문>으로 이어지는 계열로 분화되었다고 하였다.⁴⁾ 이를 바탕으로 그는 <박만득전>이 <탄금대>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조재현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 반대의 가설을 제기하였다. 정준식의 논의는 조재현의 그것에 비해 한층 체계를 갖춘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박만득전>의 형성과정을 실상에 부합되게 밝혀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이 <박만득전>에 관한 기왕의 연구는 양적으로 부족할 뿐더러 논의의 범위도 형성과정을 둘러싼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다.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무엇보다 본격적인 작품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특별히 <박만득전>이 보이고 있는 갈래 교섭 사례에 주목하고자 한다. <박만득전>은 조선후기 추노담의 서사전통을 수용하면서 갈래변용도 함께 시도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서사문학에서 발생한 갈래 교섭 사례에 견주어 <박만득전>에 나타난 갈래 교섭 양상을 살펴보고, 그것이 작품에 끼친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박만득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조선후기 서사문학사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될 것이다.

4) 정준식, 앞의 책, 125-197쪽.

2. 〈박만득전〉에 나타난 갈래 교섭 양상

갈래 교섭은 문학사의 특정 시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갈래 교섭 사례가 조선후기에 집중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서사문학사에서 일어난 갈래 교섭이 조선후기의 전환기적 상황과 일정한 연관이 있음을 의미한다.⁵⁾ 어쨌든 조선후기에는 가사와 소설, 소설과 판소리, 가사와 판소리, 야담과 소설, 전과 소설, 야담과 전 등이 교섭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갈래 교섭에 대한 연구는 가사와 소설의 교섭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⁶⁾ 그 후로 두 갈래의 교섭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그 양상을 가사의 소설 지향과 소설화, 소설 속의 가사 삽입, 소설의 가사체 활용 등으로 파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가사와 소설의 교섭에 대한 다양한 논의 가운데서도 가사가 소설로 전환된 ‘가사계 소설’과 소설이 가사체를 전면 활용한 ‘가사체 소설’을 변별하여 두 갈래의 쌍방향적 소통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⁷⁾ 이 분야의 가장 큰 성과로 꼽을 만하다.

물론 조선후기 문학사의 갈래 교섭에 대한 연구가 가사와 소설의 관계에만 국한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판소리와 소설의 교섭에 관한 논의야 오래 지속된 것이어서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이 외에도 조선후기 전(傳)의 소설적 경사를 하나의 ‘장르운동’으로 파악하고 그 구체적 양상과 이러한 운동이 전사(傳史)와 소설사에 끼친 공적을 포괄적으로 밝혀낸 박희병의 논의는⁸⁾ 전과 소설의 갈래 교섭에 대한 모범적

5) 기존 연구에서는 가사와 소설의 갈래 교섭이 발생된 예술사적 배경이 논의된 바 있다. 서인석, 「가사와 소설의 갈래 교섭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6, 154-162쪽.

6) 서인석, 앞의 논문, 4-10쪽.

7) 서인석, 앞의 논문, 46-153쪽.

인 연구 사례로 평가된다. 그리고 조선 초·중기의 사대부일화가 평민일화, 야담계일화, 야담계소설로 발전되는 양상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조선 후기 한문단편 갈래 사이의 교섭과 얽힘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이강옥의 연구도⁹⁾ 이 분야의 귀중한 성과로 꼽힌다.

조선후기 문학사에서 이루어진 갈래 교섭 사례 중에서도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갈래운동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확산된 경우이다. 다행히 이러한 갈래확산을 확인시켜 주는 두 가지 사례가 있으니 ‘열녀담’과 ‘추노담’이 바로 그것이다.¹⁰⁾ 본고의 검토 대상인 <박만득전>은 이들 중 ‘추노담’의 갈래확산 과정에서 파생된 마지막 시기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례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삼는다면 <박만득전>에 나타난 갈래 교섭 양상을 파악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열녀담’의 경우, 애초 구비설화에서는 특정 가문과 결부되지 않은 ‘민간열녀’의 형상을 그려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민간열녀’의 형상이 가사 <김부인열행가>에서는 ‘선산 김씨 가문의 열녀’로, 고소설 <곽씨전>에서는 ‘현풍 곽씨 가문의 열녀’로 변모되었다가, 고소설 <옥낭자전>에서는 다시 특정 가문과의 연관성이 차단된 ‘일반열녀’의 형상으로 변모되었다.¹¹⁾ 요컨대 이야기의 핵심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 채 열녀의 이미지만 거듭 변모된 셈이다. 따라서 구비열녀설화, <김부인열행가>·<곽씨전>, <옥낭자전>은 각기 독자성을 지닌 개별 작품으로 볼 것이 아니라,

8)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3, 363-387쪽.

9) 이강옥, 『조선시대 일화 연구』, 태학사, 1998, 283-346쪽.

10) 여기서 말하는 ‘열녀담’은 ‘남장 여인의 열행’을 다룬 일련의 설화, 가사, 소설을 두루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리고 ‘추노담’은 도망노비의 추쇄를 둘러싼 주인과 노비 사이의 갈등을 다룬 일련의 설화, 야담, 소설, 가사를 두루 포괄하는 개념임을 밝혀둔다.

11) 정준식, 「열녀설화의 장르확산과 열녀 이미지의 변모과정」, 『구비문학연구』 제 18집, 한국구비문학회, 2004, 271-303쪽.

‘남장 여인의 열행’을 둘러싼 열녀담론의 전개과정에서 파생된 작품군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이처럼 특정 이야기를 통해 설화, 가사, 소설이 교섭하는 사례는 조선후기 문학사에서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다.

‘추노담’의 경우, 추노설화가 정착된 이래 이를 근간으로 삼은 소설이 먼저 생겨났고, 이 소설이 다시 후대소설의 형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추노담을 근간으로 한 갈래 교섭이 다채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분야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서는 <김학공전>·<살신성인>을 ‘추노설화의 소설화’로, <삼강문>·<신계후전>·<탄금대>·<박만득전>을 ‘전대소설의 개작’으로 보고 있다.¹²⁾ 즉 복수형 추노설화를 근간으로 삼아 <김학공전>과 <살신성인>이 창작된 이래, <살신성인>→<삼강문>으로 이어지는 개작의 축과 <김학공전>→<신계후전>→<탄금대>→<박만득전>으로 이어지는 개작의 축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대체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박만득전>을 단순히 <탄금대>의 개작 정도로 보는 관점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박만득전>은 여타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리만치 다채로운 갈래 교섭 사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박만득전>에 나타나는 갈래 교섭의 구체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여기서는 설화 수용 사례, 소설 수용 사례, 가사체 활용 사례 등의 세 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설화 수용 사례

<박만득전>은 추노계 소설 중에서도 가장 후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박만득전>과 <탄금대>의 수수 및 선후관계에 대하여 엇갈린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¹³⁾ 하지만 두 작품의 선후를 둘러싼

12) 정준식, 앞의 책, 125-197쪽.

13) 조재현은 <탄금대>가 <박만득전>의 영향을 받아 창작된 것으로 추정한 반면,

논쟁이 어떻게 귀결되든 <박만득전>이 단순히 전대소설을 개작한 작품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추노설화는 구비와 문헌으로 적지 않게 전승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소설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것은 복수형 추노설화인바 <復讐說>, <곽씨 정문의 유래>, <남편을 위해 친정을 버린 열녀>, <상전을 죽인 종과 상전의 아들>, <부모 원수 갚은 효자와 열녀>¹⁴⁾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복수형 추노설화라고 해서 모두 같은 내용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의 갈등 해결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논의를 위해 복수형 추노설화의 각편들을 포괄할 수 있는 줄거리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주인이 몰락하자 노비들이 멀리 도망가서 산다
- ② 주인이 도망노비를 찾아갔다가 그들에게 살해된다
- ③ 주인의 아들이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없음을 슬퍼한다
- ④ 주인의 아들이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듣고 집을 나간다
- ⑤ 우연히 노비의 집에서 기거하다가 그의 딸과 혼인한다
- ⑥ 노비에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죽을 위기에 처한다
- ⑦ 노비의 딸이 자신을 희생하여 주인의 아들을 살려낸다
- ⑧ 서울에서 시집온 재상 딸이 주인의 아들을 탈출시킨다
- ⑨ 주인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한 뒤 암행어사가 된다
- ⑩ 주인의 아들이 어사출두를 통해 노비들을 처벌한다

정준식은 <박만득전>이 <탄금대>보다 후대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재현, 앞의 논문, 132쪽 및 정준식, 앞의 책, 192-197쪽). 하지만 이처럼 엇갈리는 두 주장의 시비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서는 <박만득전>의 형성과정 및 갈래 교섭 양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4) <復讐說> : 李光庭, 『訥隱集』 卷6, 雜著. <곽씨 정문의 유래> : 『한국구비문학대계』 5-7, 133-134쪽. <남편을 위해 친정을 버린 열녀> : 『한국구비문학대계』 3-3, 533-540쪽. <상전을 죽인 종과 상전의 아들> : 『한국구비문학대계』 7-10, 447-460쪽. <부모 원수 갚은 효자와 열녀> : 『한국구비문학대계』 8-5, 570-579쪽.

복수형 추노설화의 각편 중에는 위의 단락 중 일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느 각편이든 복수형 추노설화만의 변별성을 확인시켜 주는 단락 ②④⑤⑥⑦⑩은 모두 갖추고 있다.¹⁵⁾ 때문에 이 여섯 단락을 복수형 추노설화의 필수 단락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에 비해 <남편을 위해 친정을 버린 열녀>, <상전을 죽인 종과 상전의 아들>, <부모 원수 갚은 효자와 열녀>는 단락 ①~⑩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필수 단락만 지닌 <復讐說>, <괘씨 정문의 유래>보다 부연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위의 줄거리에서 가장 주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단락 ⑧⑨⑩이다. 복수형 추노설화에서는 대체로 단락 ⑦에 이어 단락 ⑩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노비 딸의 대리 희생으로 위기를 모면한 주인의 아들이 관에 고변하면, 관에서는 장졸들을 급파하여 반노 일당을 붙잡아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하자면 주인 아들의 ‘탈출’과 노비에 대한 ‘복수’가 곧바로 연결되어 있고, 복수의 방법은 관의 힘에 기대는 간접 복수인 셈이다. 이에 비해 <남편을 위해 친정을 버린 열녀>, <상전을 죽인 종과 상전의 아들>, <부모 원수 갚은 효자와 열녀> 등에는 단락 ⑦에 이어 ⑧⑨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단락 ⑩의 내용도 그에 맞게 변해되었다. 즉, 단락 ⑧의 추가는 ⑦에 이은 탈출의 정황을 보다 세밀히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단락 ⑨의 추가는 노비에 대한 주인 아들의 ‘간접 복수’를 ‘직접 복수’로 전환하여 복수의 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와 같이 복수형 추노설화 가운데 세 각편에만 단락 ⑧과 ⑨⑩이 수용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단락 ⑨⑩의 내용처럼 주인 아들이 암행어사가 되어 반노 일당을 직접 처단하는 방식은 <신계후전>에도 나타나고 있다. 만약 단락 ⑨⑩이 원래는 복수형 추노설화에 없다

15) 특히 <복수설>, <괘씨 정문의 유래>는 이 여섯 단락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복수설>은 이광정이 18세기 전반에 전승되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므로 복수형 추노설화의 초기적 모습을 지닌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가 후대에 와서 덧붙여진 것이라면, <신계후전>의 후반부에 나오는 암행어사 모티프가 역으로 복수형 추노설화에 유입된 결과는 아닐까? 실제로 <신계후전>을 읽은 독자가 그 줄거리를 설화로 구술한 경우가¹⁶⁾ 종종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런 추정이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 각편에 수용된 단락 ⑨⑩을 <신계후전>의 영향으로 볼 만한 근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필자가 보기에 단락 ⑨⑩은 단락 ⑧과 연속되어 있을 때 자연스러워 보이므로 이 둘을 연계해서 이해하는 관점이 필요할 듯하다. 이런 관점을 취할 경우 단락 ⑨⑩을 갖추고 있는 작품에는 예외 없이 단락 ⑧이 함께 수용되어 있음에 새삼 주목하게 된다.¹⁷⁾ 이처럼 설화와 소설을 통틀어 단락 ⑧~⑩을 모두 수용한 작품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곧 이들 사이에 직접적인 교섭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 교섭의 방향은 소설이 설화를 수용했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설화가 소설을 수용했다고 본다면 학계에 소개된 <박만득전>이 유일본이어서 그 전파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소설이 설화를 수용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위에 든 복수형 추노설화의 세 각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채록된 것임에도 위의 공통 서사단락을 함께 구비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세 각편이 <박만득전>에 앞서 활발히 전승되고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추노계 소설 중에서도 <박만득전>에만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인 장면, 즉 만득이 장참판대 둘째 며느리의 도움으로 섬을 탈출한 후 암행

16) <신계후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구비문학대계』 5-6, 1987, 125-145면), <모반한 종의 딸>(최운식, 『한국의 민담』, 시인사, 1987, 287-297쪽) 등이 이에 해당된다.

17) 필자가 관련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위의 단락 ⑧~⑩이 온전히 수용된 설화에는 <남편을 위해 친정을 버린 열녀>, <상전을 죽인 종과 상전의 아들>, <부모 원수 갚은 효자와 열녀> 등 세 편이 있고, 소설에는 <박만득전> 한 편이 있을 뿐이다.

어사가 되어 노비를 징치하고 두 사람이 동기의 정을 맺는 장면은 앞서 제시된 세 각편의 단락 ⑧~⑩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박만득전>이 복수형 추노설화를 수용하고는 있지만, 그 수용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 <살신성인>·<김학공전>이 복수형 추노설화의 서사구조를 거의 전면적으로 수용한 사례에 비추어볼 때 <박만득전>은 오히려 설화보다 소설에서 더 많은 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2.2. 소설 수용 사례

<박만득전>과 추노설화의 교섭이 특정 부분에 국한된 데 비해 <박만득전>과 전대소설의 교섭은 그보다 폭넓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박만득전>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추노계 소설은 <김학공전>과 <탄금대>이다. <김학공전>과 <박만득전>의 교섭은 노비의 모반에 따른 주인공 남매의 이합담에 집중되어 있고, <탄금대>와 <박만득전>의 교섭은 주인공과 세 여인의 결연담에 집중되어 있다. 이하 두 교섭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김학공전>의 서두에는 앞서 제시된 복수형 추노설화의 단락 ①~④의 내용인 ‘도망노비의 추쇄에 따른 주인 피살 사건’이 ‘가내 노비의 모반에 따른 주인 피살 사건’으로 바뀌어 있다. <김학공전>에서 처음 창안된 ‘가내 노비의 모반에 따른 주인 피살 사건’은 이 작품보다 후대에 창작된 <신계후전>·<탄금대>·<박만득전> 등에도 유사하게 수용되어 하나의 계열을 이루고 있다.¹⁸⁾ 그렇다면 <박만득전>의 해당 부분은 <김학공전>·<신계후전>·<탄금대> 중 어느 작품의 영향을 받았을까? 이 경우 ‘남매이합담’의 수용 여부를 중요한 단서로 삼을 만하

18) 복수형 추노설화를 근간으로 취한 소설은 <김학공전> 계열과 <살신성인> 계열로 구분된다. <살신성인> 계열이 복수형 추노설화의 기본 단락을 그대로 수용한 작품이라면, <김학공전> 계열은 그것을 변용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다. 〈박만득전〉에는 노비의 모반으로 집을 나온 만득과 금단 남매가 산 중에서 이별한 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상봉하는 내용의 ‘남매이합담’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지니고 있는 전대소설은 〈김학공전〉 뿐이다.¹⁹⁾ 따라서 〈박만득전〉에 나타나고 있는 노비의 모반과정 및 만득·금단 남매의 이합과정은 〈김학공전〉의 해당 부분을 변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탄금대〉는 만득과 세 여인의 결연담이 작품의 핵심구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전대의 추노계 소설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주인공 박만득은 고금도·연광정·탄금대로 무대를 옮겨 다니면서 주씨녀·평양집·채혜강과 차례로 만나는데, 주씨녀와 사별하고 평양덕에게 배신당한 뒤 채혜강을 만나면서 가까스로 안정을 되찾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박만득과 채혜강의 혼인이 재혼이라는 사실이다. 두 사람은 공히 배우자와 사별하는 아픔을 겪은 후에 만난 사이이고 서로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재혼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탄금대〉는 재혼의 당위성을 역설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탄금대〉의 핵심을 이루는 박만득과 세 여인의 결연담은 〈박만득전〉에도 아주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둘 사이의 교섭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²⁰⁾ 그런데 〈박만득전〉이 〈탄금대〉와 교섭한 사례는 좀 특이하다. 소설사적으로는 고전소설이 신소설의 출현에 적지 않은 자양분을 공급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관점을 취할 경우 당연히 고전소설 〈박만득전〉이 신소설 〈탄금대〉보다 선행했으리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²¹⁾ 그러나 〈탄금대〉와 〈박만득전〉의 교섭에 관한

19) ‘남매이합담’은 〈김학공전〉의 모든 이본에 수용된 것이 아니라 중국 배경의 이본에만 수용되어 있다. 전경욱, 「〈김학공전〉 이본고」, 『고전문학연구』 제9집, 한국고전문학회, 1994, 293-319쪽.

20) 정준식, 앞의 책, 194쪽.

21) 조채현(앞의 논문, 132면)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탄금대>가 1912년에 창작되었음에 비해 <박만득전>은 빨라도 1920년대 이후에야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박만득전>의 창작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논의가 없었다. 하지만 이 작품을 1920년대 이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할 만한 단서는 여럿 있다. 먼저, 이 작품이 <김학공전>처럼 19세기 말엽에 창작되었다면 적어도 몇 종의 이본은 발견되었을 법하다. 그런데 알려진 <박만득전>의 이본은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은 홍윤표 교수 소장본이 유일한데, 여기에는 아래 아나 각자병서 등의 고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²²⁾ 다음으로, <박만득전>은 전대의 설화와 소설을 모자이크 식으로 결합해 놓은 듯한 인상을 준다. 앞서 확인된바, 이 작품은 복수형 추노설화와 <김학공전>·<탄금대> 등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선별하여 조합하는 방식을 따랐다. <탄금대>와 <김학공전>이 각기 1912년과 1923년에 간행되었기 때문에 <박만득전>의 창작시기는 빨라도 1923년 이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앞서 언급한 <탄금대>와 <박만득전>의 유사성은 <박만득전>의 창작 과정에 <탄금대>의 결연담 구조가 고스란히 수용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3. 가사체 활용 사례

앞서 <박만득전>이 전대의 설화 및 소설과 활발히 교섭한 사례를 확인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이 작품이 복수형 추노설화 및 <김학공전>, <탄금대>의 내용을 단순히 조합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 작품만의 독창성을 드러내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지니는데, 그것은 구조와 문체에서 확인된다. 구조의 측면에서는 ‘박금단과 권만복의 결연담’을

22) ‘아래 아나 ‘각자병서’가 공식적으로 사라진 것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반포된 이후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박만득전>의 창작시기는 대략 1933년을 전후한 시기가 아닌가 한다.

새롭게 창조하여 ‘결연서사’의 비중을 높였고, 문체의 측면에서는 가사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갈래 교섭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박만득전>은 추노계 소설 중 유일하게 가사체를 전면적으로 활용한 작품이다. 이런 점에서 <박만득전>은 ‘가사체 소설’의 특징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가사체 소설은 그리 흔한 교섭 사례가 아니어서,²³⁾ 이를 발견한 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선후기에 나타난 가사와 소설의 갈래 교섭이 ‘가사의 소설화’라는 일방향적 운동으로만 귀결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만득전>에는 가사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이하 작품의 스토리 전개과정에 유의하면서 주요 대목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숙종 때 경주에 사는 박진사 부부는 오십이 넘은 나이에 만득·금단 남매를 얻는다. 그런데 만득이 11세 되던 해에 박진사 내외가 구물하자, 노복 춘득이 모반하여 主人家에 불을 지른다. 이 와중에 만득 남매는 부친의 현몽 지시로 집을 나와 산으로 피신한다.

㉠ 만득이와 금단이는/ 솥채 통의 숨엇닥아/ 금단의 손을 이끌고/ 정신없이 떠어나서/뒷동산 집은 골로/천방지방 달어날 재/찬 서리의 어린 발은/돌에 채여 피가 나고/햇풀 같은 두 다리의/번수 업시 걸친 까시/아푸기도 치양 업고/이복의 저진 서리/음동설환 완연하다/만득이 애가 타서/금단이를 들쳐업고/죽기를 무릅써고/칠 " 한 솥풀 속에/질도 엮는 산탈 새로/얼마동안 못 가여서/땀이 나서 덩이 젖고/발이 부어 외가 나니/할 수 업서 못 가갠다 (9-10쪽)

인용문 ㉠은 만득 남매가 모반을 도모한 종들을 피해 허둥지둥 산으로 피신하는 대목이다. 쫓기는 자의 가녀린 처지를 4·4조의 가사체를

23) ‘가사체 소설’로 확인된 작품은 <구운몽>과 <조생원전> 뿐이다. 서인석, 앞의 논문, 118-153쪽.

바탕으로 생동감 있게 묘사한 것이 두드러져 보인다. 그리고 “아프기도 치양 업고”, “음동설환 완연하다”, “할 수 업서 못 가갓다” 등의 가사체 어투는 리듬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심리 상태를 압축해서 드러내는 효과도 지닌다.

- ② 만득이 할 일 업서/풀입 같은 어린 동생/삼 〃 한 수륙 밤에/외로이 떠쳐두고/지향 업시 둘러서니/간담이 떨어진 듯/발자죽이 땅의 부터/서로 보든 못 하여도/언건이 너겨 우니/애련한 그 형상을/참아 엇지 말할손가/가다가 돌아와서/금단의 손을 잡고/목이 미여 하는 말이/금단아 설어 마라/너와 나와 무신 죄로/강보춤을 재우 면해/이곳까지 갖이 와서/삼 〃 한 산곡 중의/이별을 한은 곳이/너도 너 마암이 안이요/나도 내 마암이 안이로다/천지가 무정하여/너와 나와 이별한이/한량 업는 설은 해포/구친 간장 집은 곳에/갈피 〃 〃 싸여신이/너를 두고 내가 간들/앞이 막혀 어이 가며/걸음인들 온 전할가 (12쪽)

인용문 ②는 만득과 금단의 이별 대목이다. 금단을 두고 떠나야 하는 만득의 내면 심리가 구어체의 일상 언어로 곡진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4·4조의 가사체가 지배적인 가운데 “너도 너 마암이 안이요/나도 내 마암이 안이로다”와 같은 일탈을 포용하는 방식도 자연스럽다. 나아가 “애련한 그 형상을/참아 엇지 말할손가”, “너를 두고 내가 간들/앞이 막혀 어이 가며/걸음인들 온전할가” 등의 표현은 이 작품이 가사체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작가에 의해 창작되었음을 말해 준다.

금단과 이별한 만득은 산을 내려온 후 곧바로 거제도도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참봉의 사환(使喚)으로 있다가 그의 딸 김낭자와 혼인한다. 하지만 그가 늘 지니고 다니던 종문서가 유출되면서 만득은 김참봉 일당에게 피살될 위기를 맞는다. 이때 김낭자는 만득에게 위기가 닥쳤음을 알린 후 자신과 옷을 바꿔 입고 도망갈 것을 제안한다.

③ 만득이 한은 말이/목숨은 일반인데/꽃 같은 저 시절에/비루한 날을 위해/천금 같은 저 목숨이/애매히 죽어라니/죽난 너난 절개려니와/살어 가는 나의 마음/앞이 막혀 갈 수 있나/김낭자 한은 말이/시간이 밤비 오니/이복을 박귀 입고/불을 꺼고 누엎시다/...(중략)···/내외간의 마주 앓어/울고 보고 보고 울며/가련하게 한은 말이/원통하다 낭군님아/백년해로 하자 하고/태산 갖이 미뎃더니/오날 밤이 백년인가/영 이별이 웬 말이고 (21-22쪽)

인용문 ③은 만득이 김낭자와 이별하는 대목의 일부이다. 만득과 김낭자의 대화가 4·4조 로 연속되는데도 지루하거나 단조롭지 않은 것은 구어체의 일상 언어를 4·4조의 리듬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위의 인용문 ①②③은 주인공 박만득이 위기의 상황에서 누군가와 이별하는 대목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처럼 이별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데 활용된 가사체는 특유의 주정적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작중 인물과 독자의 정서적 동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작품 초반에서 만득과 산중에서 헤어진 금단은 중반부가 되어서야 다시 등장한다. 갈 곳 없어 방황하던 금단은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나 그의 수양딸로 지낸다. 그러다가 이웃의 개육으로부터, 노인 부부가 자신을 종의 아들과 혼인시키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근심어린 나날을 보낸다. 그 때 개육이 금단에게 제안한 묘책이 간질병을 가장하라는 것이었다. 개육의 계교대로 거짓 간질 증세를 보인 금단은 마침내 노인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리고 그 후 부친의 현몽 지시로 길에서 만난, 같은 고향 출신의 권만복과 결혼하여 경기도 과천에서 살림을 차린다.

한편, 박어사는 거제도 김참봉 집에 출두하여 죄상을 밝히고 자기도운 장참판댁 둘째 자부를 만나 은혜에 보답하고 남매의 정을 맺는다. 그리고 그는 김낭자를 위해 제문을 지어 읽는다.

④ 천지가 생긴 후에/인생이 생겨 있고/인생이 생긴 후에/부 "가 생겼도다/부 "를 매련할 재/백년해로 맺엇난대/에다렬사 김낭자는/날과 같이 부 "되야/백년해로 어대 두고/일년이 못 되여서/내 목숨을 대신하여/꽃 같은 그대 목숨/애매이 잣엇이니/불상하고 과련하다/.../나는 지금 돌아가면/장구 세월 좋크니와/낭자는 홀노 누워/무선 세월 보라는가/오날 같이 삼진 날의/연자 색기 날아덜어/옛 주인을 찾근만은/에달도다 김낭자는/옛 정을 잊어난가/내 온줄 몰으고서/말 읍시도 누웠는고/내 온 줄을 알아이면/웅당 수이 오려만은/어이 그리 못 온은 곳/만경창과 깊은 물의/육지 되여 오라는가/뒷동산 고목나무/잎이그든 오라는가/황천 가신 우리 부모/붓더러서 못 온가/죽든 일을 생각하니/구천 간장 깊은 곳에/구비 " " 눈물일세 (50-53쪽)

인용문 ④는 박만득이 김낭자를 위해 지은 제문의 일부이다. 이 제문은 5면에 걸쳐 장황하게 이어진다. <김학공전>에도 4·4조로 된 잡가투의 제문이 있지만, <박만득전>의 그것에 비하면 오히려 짧은 편이다. <박만득전>의 작가는 이 제문을 통해 김낭자를 그리워하는 만득의 애절한 심정을 속속들이 들춰내고 있다.

⑤ 만득이 그 말 듣고/만복의 손을 잡고/눈물로 하는 말이/원전에 경주 가서/춘덕의 원수 갚고/동구로 나오던이/너의 부친 진사임이/날다려 하신 말삼/사방을 다니닥아/과천으로 덜으가서/만복의 복으덜랑/집으로 보내달라/신 " 부탁 하옵던이/오날 와서 만내 본이/행재 같은 우리 정분/남매간이 되얏이나/섬 업난 우리 동생/오날 가지 근사하여/고상이 막심일새/만복이 사래하고/피차간에 고생한 일/밤낮을 말한 후에/여러 날을 지내닥아/남매간에 기린 마음/이 별할 수 전혀 업서/가장을 방매하여/경주로 내려와서/세월을 보내더라 (59쪽)

인용문 ⑤는 <박만득전>의 결말 부분이다. 암행어사가 된 후 거제도 및 경주에서 모반한 노비들을 징치한 만득은 과천에서 여동생 부부를

만나는 것으로 모든 결핍 부분을 해소하게 된다. 위의 장면은 만득과 그의 고향 친구인 권만복의 해후 장면이다.²⁴⁾ 애써 가사체에 맞추려 한 흔적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4·4조의 경쾌한 리듬을 타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이와 같은 가사체에 힘입어 긴 묘사가 필요한 만득과 금단 및 만득과 만복의 재회 장면이 군더더기 없이 압축되어 있다.

이상으로 <박만득전>이 가사체를 활용한 사례를 검토해 보았다. 그런데 이들 예문만으로는 그 전모를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박만득전>은 가사체를 전면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지적해 두고 싶다. 가사체의 전면적 활용은 우리말의 언어 조건을 충분히 활용한 ‘울문서사’의 길을 열어 문어로 된 소설의 문체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리고 작품의 서사내용을 4음보를 기본으로 한 의미단위로 분절해주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낭독의 편리함을 가져다준다는 이점도 있다.²⁵⁾ 나아가 가사체 울문은 작품의 주정적 성격을 강화하여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 데도 효과적이다. <박만득전>의 핵심 서사는 만득과 세여인의 결연담 및 만득 남매의 이합담이므로 남녀 및 남매의 이별과 고난 대목²⁶⁾에서 주정적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현상이다.

3. 갈래 교섭이 작품에 끼친 영향

<박만득전>은 분명 주인과 노비의 갈등을 다룬 소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노비의 갈등은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 있고 다채로운

24) 권만복은 박만득의 고향 친구이자 여동생 금단의 남편이다.

25) 서인석, 앞의 논문, 150-153쪽.

26) 만득과 금단의 도주 대목, 만득과 금단의 이별 대목, 만득과 김낭자의 이별 대목, 금단의 고행 대목, 만득이 제문 지어 김낭자를 위로하는 대목 등이 이에 해당된다.

결연담과 이합담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박만득전>은 추노계 소설이되 전대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바, 이러한 현상은 이 작품에서 시도된 다양한 갈래 교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갈래 교섭이 작품에 끼친 영향을 인물, 구조, 주제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인물의 측면에서 <박만득전>은 여타의 추노계 소설에 비해 여성 인물을 새롭게 창조하여 여성의 역할을 확대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로는 금단, 김낭자, 장참판댁 자부, 개옥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김낭자는 복수형 추노설화 및 추노계 소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여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던 인물형상을 가감 없이 수용한 것이라 새삼스러울 게 없다. 하지만 금단, 장참판댁 자부, 개옥은 <박만득전>의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 창안한 인물이므로 이들의 작품내적 역할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금단’은 만득의 여동생으로,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적극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노비의 모반을 피해 집을 나온 이후 오라비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산중에서 이별을 선택하였고, 남의 집 수양딸이 되었다가 늑혼 위기가 닥치자 광인 행세로 그 위기를 모면하였으며, 거리를 떠돌다가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주저 없이 청혼하여 혼인을 성사시키기도 하였다. 이처럼 <박만득전>의 금단은 만득과의 이별 후에 별도의 궤적을 보이며 독자적인 삶을 꾸려가는 존재로 부각되어 있다. 이런 모습은 작품에 등장은 하되 그 존재감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김학공전>의 미덕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와 같이 금단의 행적을 비중 있게 그려냄으로써 <박만득전>은 ‘만득·금단 남매의 이합담’을 기본 구조로 삼으면서 ‘만득과 세 여인의 결연담’ 및 ‘금단과 만복의 결연담’을 하부 구조로 거느리는, 안정된 서사모형을 갖추게 되었다.

‘장참판댁 자부’는 복수형 추노설화의 몇몇 각편에만 등장하는 인물인

데 이를 <박만득전>의 작가가 변용한 것이다. 섬에서 노비들에게 피살될 위기에 처한 주인공이 노비 딸의 도움으로 잠시 그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겠지만, 혼자 힘으로 반노들의 감시가 삼엄한 섬을 탈출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개연성이 부족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학공전>, <신계후전>, <탄금대> 등은 모두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박만득전>의 작가는 이 부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남편을 위해 친정을 버린 열녀> 등에 공통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재상 딸(며느리) 모티프’를 변용한 것으로 추정된다.²⁷⁾ 장참판댁 자부가 노비에게 쫓기는 만득을 치마 속에 숨긴 채 배를 타고 육지까지 무사히 데려다 준다는 내용의 ‘재상 딸(며느리) 모티프’를 활용함으로써 노비와 주인이 벌이는 쫓고 쫓기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재현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개옥’은 <박만득전>의 작가가 독창적으로 창안한 인물이다. 앞서 금단이 남의 집 수양딸로 있으면서 늑혼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고 했는데, 개옥은 그때 금단의 이웃에 살던 친구이다. 둘은 평소 나물 캐러 다니면서 친분을 쌓아가던 중, 금단의 양부모가 금단을 종의 아들과 혼인시키려 하자, 개옥이 금단에게 늑혼 위기를 모면할 방안으로 간질(癎疾)이 있는 사람처럼 행세할 것을 권했던 것이다.

[6] 하로는 금단이/저역을 먹은 후에/정주의 달어가서/설그질을 읊은
하고/도로 울문 밖에 나서면서/하늘을 쳐다보고/소래를 크게 하며
/손발을 두다리고/두 주목을 불끈 지고/기 급품을 내여물고/질 가
운대 엮더저서/정신을 불변 한은지라 (41쪽)

개옥의 제안에 따라 거짓 간질 증세를 보인 금단은 예상대로 양부모에게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그런데 그녀의 추방은 늑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이기에 절망적으로만 인식되지는 않는다. 사실 작품 초반부터 금단은 이별의 고통, 고아로서의 유랑생

27) 정준식, 앞의 책, 189-192쪽.

활, 늑흔 위기 등을 겪으며 한없이 추락하는 자신을 간신히 지탱해 왔다. 그러다가 만복을 만나면서 그 절망적인 삶을 희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된바, 이를 가능케 한 인물이 바로 개옥이다. 말하자면 개옥은 <박만득전>의 작가가 술한 고난에 신음하던 금단의 삶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새롭게 창조한 인물인 셈이다.

이상과 같이 <박만득전>의 작가는 여타의 추노계 소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금단, 장참판댁 자부, 개옥 등의 여성 인물을 새롭게 창조하여 그들의 역할을 곳곳에 설정함으로써 작품의 서사세계에 적지 않은 변모를 야기하였다.

둘째, 구조의 측면에서 <박만득전>은 더 이상 ‘추노서사’를 핵심으로 삼은 작품이라 할 수 없다. 물론 이 작품도 형식적으로는 ‘노비의 도망-주인의 추노행차-노비의 주인살해 음모-주인의 위기모면-노비에 대한 처벌’이라는 추노담의 기본 서사단락을 온전히 구비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노비의 모반으로 집을 나온 만득 남매의 이합담 및 만득과 세 여인의 결연담이 주축을 이룬다. 그렇다면 애초에 불합리한 노비제의 모순을 인식하고 그 극복 방안을 모색하면서 시작된 추노계 서사문학이 <박만득전>에 와서 가족 이합담 및 남녀결연담으로 변질된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이 작품이 신분제가 철폐된 이후에 창작된 바, 이 시기에는 주인과 노비의 신분갈등이 큰 의미를 지니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박만득전>에는 노비의 처지나 주인과 노비의 신분갈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약화되어 있다. 그래서 주인공 박만득은 자신을 죽이려 한 노복을 쉽게 용서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벼슬까지 주는 등의 어설픈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요컨대 <박만득전>의 작가는 시대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대 소설로부터 ‘추노서사’의 틀은 이어받되 주인과 노비의 갈등은 되도록 미약하게 처리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으로, 향유방식 및 향유층의 변화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타의 추노계 소설은 모두 산문으로 되어 있는데 <박만득전>만 가사체 율문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가사체의 전면적 활용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동기가 있어야 하고 새로운 향유방식 및 향유층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작가가 가사체를 전면적으로 활용한 것은 갈래 전환을 의도한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래전환은 기존 텍스트에 대한 개인적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그 결과는 인물·구조·주제 등의 변화는 물론 향유층과 향유방식의 변화까지 수반하게 되었다.

<박만득전>의 경우도 작가가 기존의 문어체 소설을 가사체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향유방식과 향유층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 법하다. 이 작품이 추노갈등을 대폭 줄이는 대신 가사체를 통해 가족 및 남녀의 이산에 따른 고난과 절망을 비장한 어조로 그려내고 인물의 내면 심리나 정서를 토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것은 4·4조의 율문체에 익숙한 새로운 독자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작가는 여성 독자들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기존 소설의 ‘추노서사’를 주변부로 밀어내고 남매이합담 및 남녀결연담을 중심부로 이동시켰던 것이다. 그 결과 <박만득전>은 명목상으로는 소설이지만, 실제 독자들은 이 작품을 가사처럼 향유하면서 주정적 분위기와 낭독의 즐거움을 만끽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셋째, 주제의 측면에서 <박만득전>은 더 이상 조선시대 노비의 처지나 노비제에 관해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을 보여 주지 않는다. 추노계 서사문학의 본질은 도망노비의 추쇄를 둘러싼 주인과 노비의 갈등을 통해 조선시대 노비제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그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노계 서사문학은 그 성격이 한결 같지 않아 노비 우위의 서사와 주인 우위의 서사를 양 극단으로 삼고 그 사이에 무수한 작품들이 스펙트럼을 형성하면서 포진해 있다. 그러므로 개별 작품에 따라 때로는 주인과 노비가 모두 죽는 비극이 연출되기

도 하고, 때로는 주인과 노비가 슬기롭게 타협하여 역사발전 단계에 상응하는 결말을 창출하기도 한다.

그런데 <박만득전>의 작가는 가사체를 전면적으로 활용하면서 주인과 노비의 갈등을 형식적으로만 그려내는 대신 만득 남매의 이합담 및 만득과 세 여인의 결연담을 핵심서사로 삼았다. 이에 따라 <박만득전>은 추노계 소설이 힘겹게 확보한, 당대 현실에 대한 긴장과 갈등을 상실한 채 개인의 가족사와 연애사에 얽힌 통속소설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러한 변질은 <박만득전>이 추노계 소설로서의 변별성을 크게 훼손했음을 의미하는바, 이 작품이 널리 성행할 수 없었던 원인을 여기서 찾아야 할 것이다.

4. 남은 문제

본고는 <박만득전>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밑그림으로 이 작품이 설화, 소설, 가사와 교섭한 사례를 살핀 글이다. <박만득전>이 복수형 추노설화에서 특정 단락을 취하고 <김학공전>과 <탄금대>에서 각기 남매이합담과 남녀결연담을 취함은 물론 가사체를 전면적으로 활용하면서 창작된 소설임을 증명하고, 이러한 갈래 교섭이 작품에 끼친 영향을 인물, 구조, 주제의 변화와 관련지어 살폈다. 이와 같이 한 작품이 다양한 갈래와 교섭하면서 창작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개별 작품의 창작 방법과 갈래간 교섭 양상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작업이 구체화되어야만 조선후기 문학사의 역동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만득전>처럼 도망노비의 추쇄를 둘러싼 주인과 노비의 대립·갈등을 다룬 소설을 ‘추노계 소설’이라 한다. 추노계 소설은 노비 계층의

현실적 처지를 본격적으로 다룬 점, 개인적 차원의 원한과 복수심을 근간으로 삼아 복수 플롯을 창조한 점, 조선후기 서사문학이 도달한 현실주의의 한 정점을 보여준 점, 조선후기 서사공간에 악노(惡奴)라는 새로운 인물 유형을 제공한 점 등에서 독자성을 지닌 유형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런데 <박만득전>은 추노계 소설이면서도 이러한 소설사적 성취와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데, 앞으로 본격적인 작품론을 통해 이 작품의 실상을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만득전(국문 필사본), 홍윤표 교수 소장본
復讐說, 李光庭, 『訥隱集』 卷6 雜著.
- 한국구비문학대계 3-3, 5-6, 5-7, 7-10, 8-5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80-87.
- 최운식, 『한국의 민담』, 시인사, 1987, 287-297쪽.
-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3, 363-387쪽.
- 서인석, 「가사와 소설의 갈래 교섭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5,
154-162쪽.
- 이강욱, 『조선시대 일화 연구』, 태학사, 1998, 283-346쪽.
- 전경욱, 「<김학공전> 이본고」, 『고전문학연구』 제9집, 한국고전문학회,
1994, 293-319쪽.
- 조희웅, 『고전소설이본목록』, 집문당, 1999, 161쪽.
- 조재현, 「<박만득전>과 추노계 소설의 비교 연구」, 『국민어문연구』 제8
집, 국민대 국어국문학연구회, 2000, 120-132쪽.
- 정준식, 『추노계 소설의 형성과 전개』, 세종출판사, 2004, 185-197쪽.
- 정준식, 「열녀설화의 장르확산과 열녀 이미지의 변모과정」, 『구비문학연
구』 제18집, 한국구비문학회, 2004, 271-303쪽.

<Abstract>

Genre Negotiation Cases in 〈*Bakmandeukjeon*(박만득전)〉

Jeong, Jun-Sik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ases of genre negotiation in 〈*Bakmandeukjeon*〉 and look into their effects on the works. As the result of the study, 〈*Bakmandeukjeon*〉 was based on Chuno folktales and Chuno novels of former generations while it used Gasa-style articles completely. In addition, as 〈*Bakmandeukjeon*〉 was changed to the ‘Gasa-style novel’, the serious conflicts between owners and servants became weaker, and families’ meeting and parting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were positioned as the core narrative. In short, the conversion of genres accompanied changes of work structure, changes of themes, and changes of the related class.

The study confirmed the specific conditions of genre negotiation resulted from narrative literature of the late Chosun Dynasty, and it will be the important foundation to understand dynamicity of a literary history in the late Chosun Dynasty.

Key Words : Bakmandeukjeon, Kasa, novel, Various Types of Revenge Story, Slaves, Owner, Abolishment of slave system, Mixture of genres

■ 논문접수 : 2009년 11월 10일

■ 심사완료 : 2009년 12월 5일

■ 게재확정 : 2009년 12월 10일